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임은정(林恩貞)

저는 1998년 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 임관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검사가 2,100명이 넘고 그중 여성이 700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여성 검사라는 타이틀이 이제 희소성이 없지만, 10년 넘게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Whistle blower 검사는 달리 없지요. 덕분에 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늘고, 이웃 나라에까지 제 목소리가 가닿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인정 욕구와 공명심, 출세를 향한 욕망, 두려움과 같은 인간의 본성, 양심과 용기 등 인간의 존엄은 다를 리 없지요. 겉으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조직 논리가 우선인 검찰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이 흔들리고 주저하다 결국 양심에 떠밀려 조직과 충돌했던 제 至難한 분투를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나라, 어느 분야에서건 갈림길은 펼쳐지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1. 檢察入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학업을 접어야 했던 부모님의 恨을 듣고 자란 탓에, 부모님이 심어준 꿈을 품고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그리 늦지 않게 임관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까지는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정답을 고르면 정답으로 인정받는, 교과서 같은 세상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검찰에서 인정받고 국민으로부터도 칭송받는, 평온하고 성공한 삶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2. 檢事로서의 覺醒 I - 검사란 무엇인가?

2000년 검사 실무 수습 시절, 변사체 부검을 참관하다가 기절하는 등 변사체 관련 업무를 힘들어했습니다. <여검시관 히카루>라는 일본 만화책을 우연히 접했지요. 검시관으로서 망자의 말을 듣고 한을 풀어 주는 히카루의 활약상을 읽으며, 제 일의 무게와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훼손되고 부패한 시신에 눈살을 찌푸리곤 했는데, 그 후 망자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시신에 남겨진 피해 단서를 살펴보게 되었지요. 여검시관 히카루가 그러했듯 망자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 지휘를 강행했다가 타살을 확인하는 등 원혼을 달래주기도 했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을 깨우쳐 주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검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3. 檢事로서의 覺醒 II -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검찰 내외의 압력이 없는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워도 되는 사건에서 벽찬 보람에 희열을 느꼈지만, 스폰서를 두고 성매매 등 혐응 접대를 받는 문화가 공공연하던 때라, 혼란스럽고 곤혹스러운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스폰서가 있다’는 말은 ‘접대받는 검찰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결국 사건을 봐준다는 말. 결코 정의롭지 않지요.

2001년 초임검사 시절, 회식 자리에서 부장검사에게 추행당했는데, 단 한 명의 선배를 제외한 모든 검사들은 못 본 척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오히려 제가 부장을 뽐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할까봐 뒤집어씌우기로 작정한 모양. 추행당했을 때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거듭 침묵했고, 보고 들은 다른 검사들 역시 거듭 침묵했습니다. 초임검사 편을 들다가 불이익을 입을까 무서웠을 겁니다.

공공연한 不義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저와 선배들. 검사인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람이 벅찼던 만큼 실망과 혼란스러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4. 檢事로 거듭나기 I - 갈림길에서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타협하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2009년 법무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가장 우수한 검사들이 모인다는 법무부에 3년간 근무하며, ‘술한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라고 애써 생각해 온 불의가 조직적 문제임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일탈하는 몇몇 간부들을 잠시 피한다고 하여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조직적인 불의를 계속 침묵하고 묵인할 것인가. 검찰청법에 따라 상급자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인가. 결심하고도 한동안 마음속으로만 이의를 제기했지요. 양심의 가책에 괴로웠지만,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2012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나 公判部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가 朴炯圭 목사와 정치인 尹吉重 進歩黨 幹事 과거사 재심 사건을 연이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公安部가 기세등등하던 이명박 정부 때라, 구형 문제를 협의해야 할 搜查 承繼 部 署인 공안부는 거침이 없었지요.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음이 확인됐고 法理上 무죄임이 명백하며 이미 共犯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제 사건들 역시 무죄 판결이 확실히 되더라도, 9월 박형규 목사 사건 결재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허락받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더욱 강경해진 공안부에 떠밀려 공판부 부장검사는 제게 白紙 求刑(징역 몇 년 등 구체적인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례적인 의견 진술)을 지시한 상황. 백지 구형을 한 후 법원의 무죄 판결에 기계적 抗訴, 上告하는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묵인할 것인가. 검찰의 위법한 관행과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서질 것인가.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5. 檢事로 거듭나기 II - 좁고 험한 길

윤길중 진보당 간사 사건에서 해야 할 구형은 무죄임은 명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정적 제거를 위해 위헌적인 법률을 소급입법으로 만들어 적법한 정당 활동을 복한을 이롭게 한 활동으로 엮은 사안이라, 공안부 역시도 무죄 판결이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 후 공안부는 기존 재심 무죄 판결이 잘못이라며 백지 구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의제기한 저는 부장검사로부터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사건에서 배제됐지요. 상명하복의 검찰에서 이의제기권 행사 사례가 그간 없었고 절차 규정도 달리 없기에, 제 이의제기는 묵살됐습니다.

직을 건 제 이의제기가 황망하게 묵살된 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의견 진술 의무를 放棄한 백지 구형 관행을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무죄 구형을 강행한 후 백지 구형과 제 이의제기를 묵살한 직무이전 지시의 위법성을 다룰 것인가. 다시 갈림길에 서서 흔들렸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했지만, 보복과 응징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계속 주저하다가, 그 주 일요일 교회 예배 중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예수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 곁에 설 것인가,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 곁에

설 것인가. 그 갈림길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적 결단을 보태어 두려움을 겨우 넘어섭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서울중앙지법 공판검사석에서 검사로 죽으리라.

6. 소회와 각오 - 검사답다

2012년 12월 28일, '백지 구형 지시를 받았으나 백지 구형은 위법하다. 윤길중은 무죄이므로 무죄 구형을 하러 법정으로 간다. 징계하려면 징계하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법정 공판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습니다. 각 오했던 대로 정직 4월 중징계를 받았고, 검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인사 불이익은 물론 엄혹한 감시에 시달렸지요. 그러나, 예상대로 '백지 구형은 적법하거나 정당한 구형이 아니고,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는 권한 없는 자의 지시라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아 5년 만에 징계가 취소되었고, 2019년 대검찰청은 '향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검 공문을 접하고 벅찬 보람과 환희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검사가 되겠다고 서약하고 검사로 임관합니다. 저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검사 선서문을 들여다보지요. <검사 선서>대로 행할 자신은 없지만, 그 선서대로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각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검사니까요.